

전남 무소속 시장·군수 민주당행 관심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남지역 정계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정홍순 장흥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에 복당을 신청, 현재 중앙당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입당자격심사위원회는 전날 4명의 단체장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13일 회의를 열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공천장에 도전하려다 중도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홍순 장흥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당 공천에 도전하려다 어렵게 되자 무

권오봉·정현복·정홍순·박우량 복당신청

“강세 민주당 조직 더욱 탄탄해질 기로 놓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뒤 4년만에 무소속으로 입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막판에 민주당 후보 신청자격을 박탈당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은 당시 박 전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도 중도 포기한 책임을 물어 자격박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특정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술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 군수는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천경배

후보를 공천 했지만, 무소속으로 나와 승리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현복 광양시장도 이번에 민주당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4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이 5곳을 차지했다.

이번에 이들의 민주당 입성이 허용될 경우 전남지역은 민주당 18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 1곳으로 재편된다.

이런 기초단체장 구도 변화는 막대한 조직력을 가진 현역 단체장들

고려할 때 내년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수는 이번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권오봉 시장, 2명의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 등으로 정치지형이 구성돼 있다.

정현복 시장이 민주당 입성을 희망하는 광양은 지역 국회의원인 평화당 정인화 의원이고, 정홍순 군수가 복당을 신청한 장흥은 평화당 황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김승남 전 의원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은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스스로 입당이나 복당을 요청했다면 안 받아들이 이유가 없을 것이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강세인 민주당 조직이 더욱 탄탄해질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동구,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광주 동구가 10일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시비 13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동구청, 동주민센터,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54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도서관 사서보조 ▲보장구 세척소독 사업 ▲장애인전용주차계도 ▲환경정리 등 11개 직무유형에 일반형일자리 30명, 시간제일자리 9명, 복지일자리 70명 등 모두 109명이 참여한다.

서구, 일회용 비닐봉투 착한이별 캠페인

광주 서구가 지난 8일 풍암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이별하는 ‘착한이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제과점과 165㎡미만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에 진행된 캠페인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관련 법령 안내와 재활용 활성화 등 전단지들을 배부했다.

남구 지역사회 구성원들 “한전공대, 남구로”

한전공과대학(케코텍·Kepco Tech)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10일 광주 남구가 결의대회를 열고 위치를 희망했다.

남구는 이날 오전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조기주 의장과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전공대 남구 유치 결의대회’ 및 TF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7년에 광주 도시첨단산단과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대로 한전공대가 광주 남구에 유치된다면 도시첨단 산단과 연계되고 에너지밸리 조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으로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구,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 성과 특특

광주 북구가 지난 2018년 추진한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북구는 “지난 한해 동안 분청 17개 부서 82개 사업에 대한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10,02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로 삼은 9,983개의 일자리 보다 41개 늘어난 결과로 목표대비 100.4%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989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54명에게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지원 94명, 고용 서비스 1,200명, 고용 장려금 466명, 일자리 인프라 구축 15건 등의 실적을 냈다.

광산구 어룡동 기관·단체협, 신년인사회 열어

10일 광주 광산구 어룡동 기관·사회단체협의회(회장 심장훈)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해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발전된 어룡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했다.

신년사에서 심장훈 회장은 “올해 주민축제 오동제가 개최 되고, 주민 자치회가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력이 높아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며 “황금돼지띠 해의 기운을 받아 빛나고 풍요로운 어룡동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文 대통령 8일 만에 ‘광주형 일자리’ 또 강조…기대감 ↑

“현대차, 국내 생산라인 만들어야”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언거푸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첫 모델로 기대를 모인 현대자동차 광주공장 합작 법인 설립에 심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카메라인 현대차를 꼭 찍어 생산라인 설치를 우회적으로 독려해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현대차발(發) 광주형 일자리’ 성사 여부에 눈과 귀가 쫓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현대차그룹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달라.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勞)와 사(使),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을 기존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 생산 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기해년 신년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며 “이는 결코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모

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8일 만에 다시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감과 대통령의 의중이 무겁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일 신년사가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총론적,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대기업을 직설화법으로 언급한 각론적 성격이 짙어 한층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 구체성을 더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외에도 국무회의를 비롯,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연착륙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어 투자 협상 재개와 속도감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여㎡ 부지에 자기 자본 280억원, 차입금 420억원 등 7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SUV를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진행해왔으나 사회적 대타협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최종 타결 일보 직전에서 무산됐다.

이윤규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광주 동구 ACC디자인 호텔에서 이웅섭 조직위원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수영대회 의료지원을 위한 지정병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세계수영대회 28개 의료기관 지원 나선다

오는 7월 개최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광주·전남지역 28개 종합병원과 3개 의료지원기관이 19개 대회시설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광주 동구 ACC디자인 호텔에서 광주수영대회 의료지원을 위한 지정병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웅섭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배학연 조신대병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등 광주지역 22개 병원장과 여수·순천지역 3개 병원장, 지역 의료단체장 3명 등 총 28개 의료지원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지정병원과 의료단체들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 경기장, 훈련장, 부부호텔 등 19개 대회시설에 의무실을 구축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150여명과 앰블런스, 의료기기 등을 지원한다.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 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